

‘성형외과 인지도에 관한 연구(II)’의 추가 발표

장충현¹·조민수¹·서상원¹·홍윤기¹·오갑성²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성형외과학교실¹,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학교실²

저자들은 10여 년의 시간 동안 일반인들의 미용성형외과에 대한 인지도 및 의식 변화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서울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서울의 4개 고등학교 1,034명과 6개 대학교 778명, 총 1,812명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의 질문 중에서 '성형외과 인지도에 관한 연구(II)' 논문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은 9가지였다:

- 1) 미용성형외과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2)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 본인 신체의 일부를 미용성형수술로써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 4) 본인이 미용성형수술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느 부위를 수술 받고 싶습니까?
- 5) 미용성형수술을 받는다면 어느 곳에서 하시겠습니까?
- 6)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수술을 받았습니까?
- 7)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 하였습니다습니까?
- 8)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9) 수술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용성형외과 인지도는 1992년 35.7%에서 48.7%로 13% 증가하였다.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가 1992년은 54.7%였으며 이번 조사 결과 73.1%로 18.4% 증가하였다. 본인 신체의 일부를 미용성형수술로써 고치기를 원하는 경우는 1992년 35.1%에서 42.2%로 7.1% 증가하였다. 본인이 미용성형수술을 받기를 원하

는 경우 수술 받고자 하는 부위는 1992년과 2003년 모두 코 부위, 눈 부위 순이었다.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성형외과 개업의에게서 받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과 일반 개업의 순이었다.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안검성형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수술을 시행 받은 곳은 성형외과 개업의, 일반의, 종합병원 순이었다. 자신이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1992년 수술전보다 낮다가 57.7%로 가장 많았으나, 2003년의 경우 잘 모르겠다가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형수술의 수술비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최근 외적인 아름다움이 강조되면서 우리 사회에 성형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에 비해 2003년에 수술적 또는 비수술적 미용 시술을 시행받은 사람은 2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여성의 51%가 미용 수술에 찬성하며 34%는 현재 혹은 미래에 자신이 수술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¹ 이와 같은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매스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설문 조사 결과, 미용성형수술을 반대하던 사람의 감소 추세가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것을 볼 때 예전엔 여성의 전유물로 여기던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남성들도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미용성형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역시 증가한 결과를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 54.7%를 보여 반 이상이 미용성형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어느 곳에서 받고 싶은 지에 관한 질문에는 1992년의 경우 종합병원과 개업의간의 차이가 미미하였으나, 2003

* 본 논문은 미용성형외과학회지 제 11권 2호에 게재된 '성형외과 인지도에 관한 연구(II)'의 보완 내용임.

년의 결과에는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 이는 종합병원에 비해 개업성형외과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며 개업성형외과의 증가 추세가 종합병원의 증가에 비해 빠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은 1992년에 비해 2003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20대 여성인 것으로 보인다. 미용성형수술을 시행 받은 병원의 종류에 대해서는 개업성형외과 전문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받고 싶어하는 곳에서는 미미했던 개업성형외과 일

반의가 종합병원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종합병원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환자들이 수술을 꺼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American Society for Aesthetic Plastic Surgery. *Cosmetic Surgery National Data Bank-2003 Statistics*. New York: American Society for Aesthetic Plastic Surgery, 2004